

60 고무벨트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뇌실조증 및 MSA 의증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고무벨트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 요

한○○은 1992년 3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는 고무, PVC, 우레탄을 자르고 접착하고 시공하는 일을 주로 하던 중 2006년 11월부터 서서히 어지러움증, 구음장애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소뇌실조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한○○은 1992년 3월 산업용 벨트를 생산, 판매, 시공하는 회사인 ○○물산에 취업하였다. 보통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일을 하며, 토요일에도 비슷하게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 벨트를 시공하러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벨트 가공은 고무, 우레탄, PVC, 폴리등을 재단, 접착, 포장하는 일로서 대략 하루 중 재단에 2시간, 접착에 4시간, 포장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너를 걸레에 묻혀서 필요 시마다 고무의 표면에 있는 얼룩을 닦거나 접착제가 잘못 묻는 부분들을 닦았다고 하며 작업장 내에 고무냄새, 본드냄새가 하루 종일 심했다고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작업 공간에 환기가 미비하였고 채취하여 분석한 신나 시료 중 톨루엔의 함량이 4.419%였다.

3 | 의학적 소견

한○○은 당뇨, 신경계질환,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고, 두부 외상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은 없었다. 가족 중 신경계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은 이는 없었다.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6년 11월 초부터 어지러움증이 있었고 11월 중순부터 구음장애가 동반되었다. 2006년 12월 6일 진찰시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것이 관찰되었고 식사시 자주 사레가 걸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 때 촬영한 MRI와 MRA에서는 현저한 소뇌 위축이 관찰되며, 2006년 12월 14일 소뇌실조증을 진단받았다. 2006년 12월 20일 신경학적 검사 중 급속교대운동 장애가 있었으며, 손가락 코에 대기 운동거리조절이상도 동반되었다. 하악반사가 증가되어 있었으며, 대칭적으로 심부건반사가 증강되어 있었고, 일렬보행의 장애를 보였다. 전기안진도에서 소뇌 기능 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2007년 3월부터 요실금과 변비 증상이 자각되어 지속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영상의학과 특진 소견에서 소뇌와 뇌간(중뇌, 교뇌, 연수포함)에 걸쳐 미만성 위축 관찰되었다.

4 | 결 론

근로자 한○○은

- ① 취업 14년 경과 후 소뇌실조증 진단과 산발성실조증 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질환은 유기용제 중독에서 나타나는 독성뇌병증의 성상과 일치하며,
- ② 톨루엔, 크실렌 등의 복합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뇌위축등의 중추신경 유기용제 중독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③ 1992년 이후 장기간 복합유기용제에 노출수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의 소뇌실조증 및 산발성실조증 의증은 직업적 노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